

중소기업의 유희 설비 대북 이전 수요 설문 조사¹⁾

중소기업의 남북 경험 추진 의향

1) 남북 경험 사업 추진 계획

- 중소기업의 77.0%가 남북 경험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1.5%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진 형태에서는 위탁 가공 사업(49.1%)을 가장 선호
 - 업종별로는 가죽·가방·신발 업종(100.0%)과 목재·종이·출판·인쇄 업종(81.3%), 섬유·의복 업종(78.2%) 등 경공업 부문이 남북 경험 사업 추진을 가장 고려하고 있음

<p>▶ 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 추진: 21.5% •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 55.5% • 현재 추진중: 1.2% • 추진할 의향이 없음: 21.8% 	<p>▶ 추진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가공: 49.1% • 대북 투자: 25.5% • 단순 교역: 25.4%
--	---

2) 남북 경험 추진 절차에 대한 인지도

- 중소기업의 70.1%는 남북 경험 추진 절차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p>▶ 추진 절차 인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고 있음: 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 알고 있음: 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잘 알고 있음: 0.9%
--	---	--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998년말(11.16~12.16) 전국의 중소 제조업 3,000 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유희 설비 보유 현황과 대북 이전 관련 수요 및 의향을 우편이나 FAX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유희 설비의 대북 이전을 희망하는 남북 경험 업체들의 어려움과 과제를 제시하여 추진 사책에 반영코자 설문 조사한 것이다.

유휴 설비 보유 현황과 원인

1) 유휴 설비 보유 현황

- 중소기업의 55.0%가 유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비 가운데서 유휴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0% 이상' 되는 업체도 2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유휴 설비 보유 현황

- 10% 이하: 21.6%
- 11~20%: 11.4%
- 21% 이상: 22.0%
- 유휴 설비 없음: 45.0%

2) 유휴 설비 보유 원인

- 유휴 설비를 보유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수주 물량 감소'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 개발에 따른 공정 변경' (28.2%), '생산 품목의 축소'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휴 설비 보유 원인

- 수주 물량 감소: 37.0%
- 기술 개발에 따른 공정 변경: 28.2%
- 생산 품목의 축소: 12.7%
- 생산 공정의 외주 전환: 9.9%
- 사업 전환: 2.3%
- 과다한 시설 투자: 2.2%
- 기타: 7.7%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정부의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의견

-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험 활성화에 대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72.9%)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국내 유휴 설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 정부의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의견
 - 남북 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 추진: 48.4%
 - 국내 유휴 설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추진: 24.5%
 - 대북 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북한의 수용 가능성 및 이전 방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음: 26.3%
 - 대북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음: 0.9%

2)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의사와 추진 이유

- 정부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에서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의 64.9%가 참여할 것으로 조사됨
 -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 이유로는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 목적'이 40.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기술의 이전의 용이함'(9.8%), '원자재 조달 및 판매 시장 확보 목적'(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 여부
 - 참여하겠음: 64.9% • 참여하지 않겠음: 35.1%
- ▶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40.8%
 - 국내 기술의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9.8%
 - 원자재 조달 및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9.7%
 -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9.5%
 -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해: 8.7%
 - 관세 면제 등에 의한 이윤 확보를 위해: 7.1%
 - 외국에 헐값으로 처분하기 보다는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6.2%

3)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희망 지역

-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은 '남포 · 해주 · 원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권'(33.2%)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29.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희망 지역
 - 남포 · 해주 · 원산을 중심으로 한 해안권: 33.2%
 -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29.1%
 - 휴전선 인접 지역: 20.9%
 - 나진 ·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12.7%
 - 기타: 4.1%

4) 유휴 설비를 북한의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계획

-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 수출하겠다는 업체가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계획
 - 제3국으로 수출: 50.1%
 - 북한 내수 시장 확보: 26.2%
 - 남한으로 반입: 22.5%
 - 기타: 1.2%

5)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소요 비용과 조달 방법

-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업체당 소요 비용은 평균 5억 4,900만 원으로 조사되었음
 - 그 비용은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업체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업체당 평균 소요 비용
 - 5억 4,900만 원
- ▶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소요 비용의 조달 방법
 - 정부의 정책 자금 이용: 54.5%
 - 남북협력기금 이용: 21.6%
 - 자체 자금으로 조달: 12.6%
 -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 8.6%
 - 기타: 2.7%

6)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바람직한 방식

- 유휴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식으로는 '유휴 설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방식' 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방식' (26.2%) 등의 순으로 조사됨

<p>▶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설비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방식: 32.2% • 북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방식: 26.2% • 정부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 매입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방식: 16.6% • 직접 투자하는 방식: 15.4% • 유휴 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는 단순 물자 교역 방식: 9.6%
--

7)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나 창구

-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나 창구로 중소기업의 71.3%가 중소기업 관련 지원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을 꼽고 있음

<p>▶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나 창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 71.3% • 정부: 18.5% • 전문성 있는 민간 알선 단체: 4.5% • 중소기업협동조합: 4.2% • 개별 업체 독자적으로 추진: 1.5%

8)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최대의 애로 사항으로 '대북 투자의 불안정성' 이 29.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20.4%), '북한 당국의 부정적인 태도' (13.7%), '북한에 대한 정보력 부족'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유휴 설비 대북 이전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 대북 투자의 불안정성: 29.5%
 - 북한 당국의 부정적인 태도: 13.7%
 - 추진 절차의 복잡성: 6.0%
 - 북한측 파트너 선정: 4.0%
 -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20.4%
 - 북한에 대한 정보력 부족: 13.2%
 - 추진 자금력의 부족: 5.0%

9) 유휴 설비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험 활성화 과제(정부 부문)

○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대북 투자 안정성 보장'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휴 설비 대북 이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14.5%), '민관 합동의 추진 기구 구성'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유휴 설비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 경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
 - 대북 투자의 안정성 보장: 34.3%
 - 유휴 설비 대북 이전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14.5%
 - 민관 합동의 추진 기구 구성: 12.9%
 - 남북협력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통한 투자 손실 보전: 7.2%
 - 북한에 남한 기업 전용 공단 조성: 6.5%

유휴 설비 제공을 통한 남북 경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 설비 제공 위탁 가공 교역의 활성화
 - 반출된 생산 설비의 운전 및 기술 지도를 위해 북한내 최소한의 실무급 기술자 체류 허용과 물류비 절감 요원
- ▶ '남북한산업협력추진센터(가칭)' 설치
- ▶ 설비 제공 남북 경험 사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해외 투자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 자금(해외시장개척자금과 기금, 해외투자자금, 해외대출) 및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여 지원
- ▶ 설비 제공 남북 경험 사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투자보호협정, 이중과세방지조약, 통행·통신협정, 대금 결제 방식 등 남북한 당국자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분쟁 해결 방안 강구
- ▶ 북한내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
 -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부담하여 입주 업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회수하되, 필요시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지원
- ▶ 대북 이전 가능한 설비의 DB화와 제도 보완
- ▶ 남북 경험 추진 절차에 관한 설명회 개최